



「남해 힐링아일랜드 산토리니형 휴양리조트」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도, 대형건설업체 간담회 통한 소통
- 경남도 우수 전문 건설업체 정보를 한 눈에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안전 경남 건설
- 경남도, 치수방재현장 안전과 청렴 확산 다짐
-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304억 원 확정
- 경남,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684.7억원 지원 확대
-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및 지원시설부지 행복주택 건설 지원 확정
- 경남도,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박차
- 창원스포츠파크 확대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져
- 7색의 통영 테마 관광섬 베일 벗다
-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항공산업, 뿌리산업과 함께 신 성장동력 한 축 담당
- 합천군, 2012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상 수상

### ■ 지식정보 ..... 13

- '창원 드림타운'건립으로 산단 구조고도화 본격 시동
- 교통 적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시화

- 홍준표 도지사,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 기대 높아
- 2014년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경남 통영시 선정
- 밀양 나노 국가산단 '경남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중앙위 턴키심의위원 청렴결의!
- '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 해빙기대비 전국 674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도로 등 건설현장 발생 임목 재활용 길 열렸다!
-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문 열어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 해외건설이야기 ..... 23

###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 26

### ■ 신기술 정보 ..... 31

### ■ 건설기술심의 현황 ..... 32

### ■ 계약심사 현황 ..... 33

### ■ 기술인 나눔 정보 ..... 33

### 경남도, 대형건설업체 간담회 통한 소통

▶ 정보교류와 청렴 건설의 다짐의 장 마련



경남도는 3월 6일 국내 대형건설업체 영남 지역 지사장,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 2014년 건설방재 국 주요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기술형 입찰 등 설계심의 운영 계획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전달, 대형건설사의 공정경쟁에 대한 당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건설산업은 복지를 만들고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관련 산업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그동안 주택건설시장과 공공공사에 의존도가 높았던 건설산업을 새로운 수익 모델 구상을 통해 업체간, 공사간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3



### 경남도 우수 전문 건설업체 정보를 한 눈에

▶ 경남도·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공동으로  
시스템 마련

최근 발표되는 건설관련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장기화 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건설산업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간의 수주격차도 점점 심화되는 양상에 따라 경남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가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금년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정부의 SOC사업 투자축소와 구조조정 등 건설업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시장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마련 등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담은 CD를 제작, 대형 종합 건설업체에 배부하는 사업을 CD 제작 및 우송에 따른 비용 부담과 편리한접근성,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에 구축한 『경상남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시스템』은 도내 전문건설업(설비 포함) 21개업종 5,079개업체 정보를 협력업체 등록 추천과 하도급업체 추천용으로 구분하여 담고 있으며, 해당 업체를 검색하면 기본현황, 경영 및 기술인력, 신기술 및 신공법 보유현황 등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도 전체 또는 각 시·군별로 열람이 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선택시 지역 또는 업종 선택을 한 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별로 검색과 출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http://gnci.gsnd.net>)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홈페이지([www.kosca38.or.kr](http://www.kosca38.or.kr))를 통하여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달 중앙 및 대형 건설업체 800여개사에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시스템 홍보와 지역 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4

##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안전 경남 건설

▶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 등 156억 원 투입

경상도는 올해 추진하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 등 4개부문 113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3억원 등 총 156억 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자동차에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모제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201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창원시 석전초교 및 경남은행 주변 일대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으로 자동차 통행 억제, 교통 약자 배려, 보행 위험요소 제거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에 교통소통 불편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 하는 사업도 밀양시 등 5개 시군에 14억원을 투입 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지내 지방도 1077호 등 5개소에 각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게 된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좋은 모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에는 57억 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창원초등학교 등 13개 시군 16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510개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창원시 용호초교 등 15개 시군 29개소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부터 제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10년간 총 1,367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위험도로 100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43억 원을 투입하여 거창군 남하면 지방도 1084호선상 살피재 도로를 비롯한 14개소의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의 굴곡부, 급커브, 급경사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량, 경사완화, 교차로 입체화 등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 불편을 해소 하게 된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비가 정부의 보육예산 등 복지분야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올해 1월말 건설방재국장과 업무담당자가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고 올해 추경시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도 부족예산에 대해 추가확보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남도는 “앞으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형 불량,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6



## 경남도, 치수방재현장 안전과 청렴 확산 다짐

▶ 10일 치수방재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등 60여명이 참석, 조기집행 및 청렴실천 다짐

경남도는 10일 치수방재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공사장 안전과 품질관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은 물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는 남해 무림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현장소장 30명과 치수방재공무원 30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시행할 치수방재사업 198개 지구 3536억 원을 2월말까지 90%이상 착공하고 6월말까지 60%이상 집행하기로 하였다. 참석한 공사감독자 및 현장소장들도 청렴운동 확산을 다짐하면서 안전과 품질관리에 대한 마인드 향상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 ▲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조속 추진
- ▲ 수방자재 확보 비축 등 상시 가동체계 확립
- ▲ 현장 내 각종 자재관리 철저 및 품질관리 철저와 현장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환경관리분야, 현장내 가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

▲ 협의보상 지연 등 고질적인 보상민원은 토지 소유절차를 조속히 이행 등을 내용으로 보상담당자, 공사감독과 협조체계 유지 등을 당부하였다.

또, 치수·방재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하였고, 현장의 인명피해 제로화와 안전시공을 당부하였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생태이천담당 (055)211-3913

##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304억 원 확정

▶ 舊마산 원도심과 연계한 “마산재생 프로젝트” 기반 마련

경남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12건 304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의 군·구, 일반시, 도농복합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도내에는 창원시, 김해시가 이에 해당된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으로 쇠퇴한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네트워크 도시재생사업 등 중심시가지 재생

사업에 5건 162억원, 舊마산 노산동 지역 등 거주 여건이 악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지재생사업에 2건 42억원, 도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장척힐링마을만들기 등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5건 100억원이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마산재생 프로젝트”를 『경남미래 50년』 전략계획으로 선정하여 舊마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도시활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중심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6

## 경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684.7억원 지원 확대

- ▶ 용자한도 5천만원→6천만원 증액, 대출금리 연3%→연2%로 인하
-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취득세 및 재산세(5년) 세금감면 혜택



경상남도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134동 680억원, 빈집정비사업 724동 4.7억원, 총사업비 68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이하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주택개량 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자한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늘었고,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인하되어(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가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져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폐가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338만원, 일반지붕 빈집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농어촌 경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 건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주택에 대한 노후도, 소득수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한옥, 귀농·귀촌, 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축 희망자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 건축과에서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활용과 건축사협회 등 협조를 통해 건축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옥상녹화지원, 우수주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택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주택개량사업이 조기 착수되어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6



##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및 지원시설부지 행복주택 건설 지원 확정

▶ 행복주택 건설자금의 70% 지원(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12일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계획 발표로 경남도의 미래 50년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정주권 개선 행복주택 건설 지원 안은 행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70%를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를 지원하게 되어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30% 투자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행복주택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번 지원계획으로 경남은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창녕 미니복합타운 조감도>



<함안 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창원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5월 지정되어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정 95%로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2만 5000㎡에 875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2012년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함안·창녕 미니복합타운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으로, 400호 이상이 예산지원을 받아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게 된다. 이로써 경남지역에 산업단지 근로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최소 1275호 이상 공급되는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산업단지 인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 건설을 2014년 주요도정과제로 채택하여 기본용역을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었다. 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보다 진전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3



## 경남도,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박차

-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6495억 원 투자
- ▶ 휴양과 힐링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남해군이 ‘힐링’을 테마로 한 명품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경남도는 17일 “남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힐링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7년간) 6495억 원을 투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는 한반도의 최남단,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특화시켜 휴양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고품격 관광휴양 아일랜드를 조성해 동북아 사계절 관광휴양 중심지로의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33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생태계가 잘 보전된 미조면 조도·호도일원에 다이어트 센터, 숲속명상센터, 스파빌라 조성 등으로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된 아일랜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군 관계자는 국내기업(이랜드, 대원그룹)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투자 의향기업(윈통기금)의 민자유치가 확정될 경우, 특색 있고 차별화된 대규모 힐링단지가 조성될 것이라 밝혔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에 2017년까지 733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힐링센터, 생애박물관, 산책로, 전망대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힐링과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한 친환경 힐링 테마빌리지로 조성되게 된다.

또한, 재일마을 30여 세대가 민자로 유치될 계획으로 인근 독일마을, 미국마을과 연계한 국가별 테마거리가 조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빌리지 조감도>

산토리니형 관광휴양리조트 조성은 남해군 미조면 송정관광지 일원에 2020년까지 1500억 원이 투입되어 해안 경사 지형과 절묘하게 조화되는 관광휴양리조트가 조성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경상남도, 남해군, 대명그룹과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17년까지 약 11만㎡ 규모로 조성되게 되는데, 세계적 휴양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를 개발 컨셉트로 추진함에 따라, 국내·외 힐링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휴양관광명소로서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산토리니형 휴양리조트 조감도>

남해군 창선면 일원에 조성되는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은 2017년까지 민자 3926억 원이 투입되어 골프장, 콘도시설 등이 조성되게 된다. 힐튼 남해골프&스파리조트, 남해스포츠파크, 요트학교 운영과 더불어 해양·레저의 체험형 관광 명소로 재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조성사업 조감도>



경남도는 리아스식 해양 경관과 아름다운 해수욕장 등 천연의 아름다움속에 휴양리조트가 산재한 보물섬 남해를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대인의 화두로 떠오른 healing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함으로써,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 미래 50년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홍준표 도지사의 현재 시군 순방 이유 중의 하나가 경남도의 미래 50년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오늘 홍지사의 남해군 방문으로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남해안발전담당 (055)211-6423



##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져

▶ 올해 6월 착공, 2016년까지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추가 설치

창녕 부곡온천 단지에 자리잡은 창녕스포츠파크가 두배로 커져 축구종목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창녕이 온천휴양과 어우러진 인기 동계훈련지로 더욱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경남도는 현 창녕스포츠파크 주변 8만㎡ 부지에 국도비 156억 원을 투입, 올 6월 착공하여 2016년까지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창녕군을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가 창녕군 현안사업 보고에서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에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을 약속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창녕스포츠파크는 연간 250팀, 6만여명의 전지훈련팀이 찾아와 운동시설 부족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향후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이 7면으로 늘어나고 경기장이 집중돼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부곡온천 이용객도 증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창녕스포츠파크는 창녕군의 특화전략 체육시설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며, 경남 브랜드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현재 창녕스포츠파크에는 축구장 4면, 정구장 12면, 궁도장 1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실내 6면, 실외 4면)을 갖추고 있다. 부곡하와이에는 국제규격의 8레인 실내수영장도 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은 1월말 기준으로 축구 41팀 2만 447명, 정구 12팀 1200명, 싸이클 8팀 2268명으로 총 61팀 2만 3945명을 유치했다.



■ 자료 : 도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담당 (055)211-4884



## 7색의 통영 테마 관광섬 베일 벗다

### ▶ 5년간 968억 원 투입, 특색 있는 7개 관광섬 조성

청정해역 한려수도 중심지인 통영의 7개 섬이 각각의 테마를 가진 섬으로 탄생된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통영의 7개 섬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968억 원이 투입되어 자연치유, 창작예술, 생명 등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섬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대상 섬은 총 7개로 봉도, 납도, 내초도, 수우도, 용초도, 상하죽도, 송도이다. 이들 섬은 각 섬의 입지적 잠재력을 끌어내 차별화된 테마를 가진 섬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지난해 12월말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올해부터 봉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봉도는 '자연치유의 섬'이라는 테마로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쑥을 친환경 치유소재로 활용하여 자연치유, 테라피 등 자연친화적인 체류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을 비롯한 힐링센터, 산책로, 특화식물(쑥)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납도는 '창작예술의 섬'으로 예술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예술인 및 전수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공간 마련과 예술체험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여기에는 향만시설을 비롯하여 아트체험센터, 예술인촌 등이 조성된다.

내초도는 '생명의 섬'으로 성인병, 비만, 미용 등 현대인의 관심사를 다룬다. 여기에는 향만시설을 비롯해 힐링센터, 성인병치유원, 풍욕 체험장 등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심신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수우도는 '모험체험의 섬'으로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웰빙어드벤처 투어리즘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는 산악·레포츠센터, 암벽타기 선착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용초도는 '역사유적의 섬'으로 테마를 잡는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전쟁기념공원, 한산수련원, 한상망루, 돌레길 등이 들어선다.

상하죽도는 '해양체험의 섬'으로 간조 시 상죽도와 하죽도가 연결되는 독특한 경관을 가진 곳으로 향만시설, 스노클링체험장, 해수욕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송도는 '생태보전 관찰의 섬'을 테마로 하고 향만시설, 향기치료원, 산책로, 특화식물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 도서명  | 테마명        | 주요 예정 시설                                   |
|------|------------|--|
| 봉도   | 자연치유의 섬    | 기반시설, 바다약초원, 산책로, 특화식물(쑥) 개발 등             |
| 납도   | 창작예술의 섬    | 기반·향만시설, 아트체험센터, 예술인촌 등                    |
| 내초도  | 생명의 섬      | 기반·향만시설, 힐링센터, 성인병치유원, 풍욕체험장 등             |
| 수우도  | 모험체험의 섬    | 산악·해양레포츠센터, 암벽타기선착장, 출렁다리 등                |
| 용초도  | 역사유적의 섬    | 전쟁기념공원, 한산수련원, 한상망루·돌레길 등                  |
| 상하죽도 | 해양체험의 섬    | 기반·향만시설, 스노클링체험장, 해수욕장 등                   |
| 송도   | 생태보전 관찰의 섬 | 기반·향만시설, 향기치료원, 산책로, 맨발항도원, 특화식물(고사리) 개발 등 |

### <통영 테마가 있는 섬 조성예정 현황>

이들 7개의 섬은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와 보존을 최우선 목표가치로 설정하고, 공공부문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견인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업완료 후에는 관광객 수요에 따라 정기노선 확장 및

운항 시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안경관 감상과 도서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해상 택시 및 버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7개 섬 조성을 통한 건설 및 관광 산업에 의한 파급효과로 238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98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63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24일 통영시 순방에서 “통영의 경우 국제적인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관광섬 개발로 섬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가 추진 중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다음세대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도>



<남도>



<내초도>



<수우도>



<용초도>



<상하죽도>



<송도>

■ 자료 : 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055)211-4833



##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DYNAMIC WAVE'

창원시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한 결과,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DYNAMIC WAVE'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DYNAMIC WAVE'

⇒ 첨단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전시컨벤션의 무한 성장 동력의 바람이 분다.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기존 연면적 60,240㎡에 18,600㎡ 정도를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공모특징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원이대로의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기존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호텔, 시티7 등 주변 건물과의 조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설계공모를 실시해 총 5개 작품을 제출받아 지난 20일 전문 분야별(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경관) 대학교수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존 건물의 공간적 연계성과 조형적 상징성을 부여한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소재)의 'DYNAMIC WAVE'를 당선작으로 뽑았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 자료 :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201



## 항공산업, 뿌리산업과 함께 신 성장동력 한 축 담당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전과 때맞추어 진주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3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국비 등 647억원의 사업비

로 지상 2층 연면적 10,890㎡ 규모로 오는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이며 장비 구축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는 당초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지 내에 2011년부터 총 240억원의 사업비로 세라믹섬유 실용화 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3년 3월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라믹소재 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에다 첨단융합 세라믹산업 육성 인프라와 세라믹 Test Bed센터, 세라믹 DB센터, 세라믹 시뮬레이션센터가 있는 세라믹소재 종합솔루션센터 및 창업보육센터가 포함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구축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기존 부지가 협소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진주시에 6,000㎡ 상당의 부지 제공을 요청해 왔다.

이에 진주시는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가 항공기, 자동차, 조선산업 등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관련기업 창업과 유치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면서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 이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확대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라믹 소재는 내열성, 전기절연성, 화학 안정성의 큰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우주항공 산업, 지능형기계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였지만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는데다 국내에 관련 제조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종합지원센터의 구축이 절실했다.

이번에 진주 혁신도시 내에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 첨단융합 세라믹산업 육성 인프라, 세라믹소재 솔루션센터,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세라믹 관련 산업의 전주기적(full-cycle) 지원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가능해 지게 되었다.

시는 이로 인해 첨단인프라 활용지원 기능, 전문연구인력 기술지원 기능, 세라믹전문인력 양성 기능과 창업기업 육성지원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2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는 등 진주시가 국내 세라믹소재 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및 뿌리산업과 더불어 신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면 입주하는 연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창업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침체된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진주시 투자유치담당관 (055)749-5263



## 합천군, 2012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전국 최우수상 수상

합천군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한 2012년 수해복구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심사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 26일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및 담당 공무원이 훈장을 받게 되었다.

본 심사는 2012년 태풍에 의한 수해복구사업 중 도로분야, 하천분야, 펌프장분야 등을 소방방재청의 서류심사와 민간심사반의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심사결과에서 합천군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합천군은 당시 태풍 산바로 인하여 239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760억원의 복구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총 325건의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듬해 6월 이전에는 90%이상 완료되어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초계면, 가회면 소재지와 상신천은 개선복구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태풍 산바의 영향에 따른 신속한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군비를 절감한 점,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 자료 : 합천군

## '창원 드림타운' 건립으로 산단 구조고도화 본격 시동

- ▶ 창원국가산단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
- ▶ 총사업비 428억 원, 근로자 기숙사 임대주택 420실 건립



경상남도는 1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김석기 창원시장 권한대행,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주)하나은행 김병호 부행장 등 관계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드림타운'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창원 산단 직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편의·친환경이 집결된 고품격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창원드림타운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층, 지상15층, 연면적 21,704㎡ 등 총 420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창원 드림타운'은 정부 예산 100억 원을 기초 투자금(Seed Money)으로 (주)하나은행에서 240억 원을 유치하여 장기간 방치해 온 공단보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개발된다.

젊은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 주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창원 드림타운'은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테마형 조경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자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자기개발센터, 카페, 휘트니스센터, 공동수납창고를 제공하고, 전문성 높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도시락, 세탁, 안전관리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창원 드림타운' 건립사업은 산업부에서 지난해 7월말부터 창원, 광주, 구미 등 3개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창원산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창원 드림타운 사업 위치도>

| 구분   | 면적                 |
|------|--------------------|
| 전용면적 | 2484(75%)          |
| 공동면적 | 1241(37%)          |
| 소 계  | 3725(112%)         |
| 실 수  | 420실               |
| 면적소계 | 15,644,804(73,35%) |

| 구분    | 면적                |
|-------|-------------------|
| 주거실   | 7,095,002(332.6%) |
| 기타건기실 | 500,000(151.2%)   |
| 복합시설  | 660,200(89.7%)    |
| 면적소계  | 8,255,202(483.5%) |

**단면계획**  
주거시설·부대시설·지하주차장으로의 ONE-STOP생활 가능  
주거시설은 2층부터 계획하여 프라이버시 확보

<창원 드림타운 평면도 및 조감도>

그 동안 도와 창원시는 사업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고도제한 및 주차규정 완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투자유치의향서를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원산단은 지난 40여 년간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 왔으나, 첨단지식기반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기를 놓쳐 성장이 점차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창원 드림타운’ 건립을 시작으로 구조고도화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창원산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드림타운’은 2014년 상반기 중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승인받는 대로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6년 2월 준공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과학정책담당 (055)211-2755



## 교통 적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시화

- ▶ 함양군 함양읍 신관백천리 일원 74만㎡ 규모, 560억 원 투자
- ▶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 향노화 기능성 식품 등 유치 계획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은 물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산업이 될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하나인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는 2019년까지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에 74만㎡ 규모로 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 향노화 기능성식품 등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1월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로 이전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신속한 행정 처리와 투자기업 유치 등 사업 추진에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0년부터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하여 이미 90%이상 매입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홍보 등 대외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2015년 4차로 확장 완료)’가 교차하는 남부내륙 최고의 교통중심지인 함양JC 인근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되면 동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사업 예정부지는 남부지역의 5대 광역도시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여 물류비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힐 전망이다.



한편, 25일 함양을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는 “함양은 대형 국책사업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완공과 올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서북부경남의 성장과 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개발사업추진단 백두대간개발팀당 (055)211-6523



### 홍준표 도지사,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지정 기대 높아

▶ 3월 국토부 발표 예정, 국가산단으로 지정 되면 서북부경남의 경제축으로 자리잡아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목전에 와 있다. 27일 진주, 사천을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는 “오는 3월경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와 진주, 사천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은 진주, 사천 지역 436만㎡에 7785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산업의 허브로 육성, 2020년 항공산업 G7으로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항공산단 조성으로 16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5만 8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낙후된 서북부경남 발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분류되어 그간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비롯한 3차례에 걸친 산업입지 수요 조사와 산업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업부 및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진주, 사천으로의 지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낙후된 서북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도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이어 2월 6일에는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항공산단 유치 TF팀’을 가동하여 도내 앵커기업은 물론 부산, 대전 등 전국 항공기업을 다니며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진주시, 사천시와 함께 ‘국가산단 선분양을 위한 투자유치 및 앵커기업과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고 8개 앵커기업에게 116만㎡ 산업용지에 총 6600억 원의 투자와 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약속받는데 성공했다.

진주와 사천을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진주와 사천에 항공산업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낙후된 서북부경남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감도>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항공산업팀당 (055)211-2723



## 2014년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경남 통영시 선정

▶ 전국 1개소 선정, 3년간 총 56억 원 규모 투입

18일 환경부에서 ‘2014년 환경에너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통영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56억 원(국비26, 지방비30)이 투입되어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및 퇴비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시설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 음식물쓰레기, 수산잔재물 등으로 재생 에너지원(메탄가스)을 생산, 열병합발전으로 전력 생산을 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원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온수)을 인근 마을 공동시설 및 비닐하우스 단지에 공급함으로써,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로 수익을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환경부가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었으며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화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개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하며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시설이 지역의 폐자원 활용도 및 에너지 자립화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자료 :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담당  
(055)211-4134



## 밀양 나노 국가산단 ‘경남의 최우선 과제’ 로 추진

▶ 경남도 밀양시와 함께 나노융합 국가산단 지정 위해 총력

20일 밀양시를 방문한 홍준표 지사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경남의 미래를 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경남의 미래를 열어갈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343만㎡규모로 총사업비 5934억 원이 투입되어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나노융합분야 국책연구소 분원 및 관련 연구시설, 나노융합 관련 제조업체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경남에 3조 2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05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만 857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돼 지역발전의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그간 산단 지정을 위해 분주한 걸음을 해왔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밀양으로의 산단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또, 국가산단 조성 시 미분양을 우려하는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경남도와 밀양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나노산단 유치 TF팀’을 만들어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총 23개의 기업체, 대학,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해 7800억 원의 공장설립 투자, 115만㎡의 산업용지 입주, 46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약속받았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나노융합산업 입지 수요조사 실천계획이 보고되었고, 9월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시를 방문해 나노융합 국가산단 지정 지원을 약속하며, 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홍지사의 밀양시 방문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인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일”이라며, “향후 경남도는 밀양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해나가며, 나노 관련 기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및 위치도>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나노융합담당 (055)211-2743



## 중앙위 턴키심의위원 청렴결의

### ▶ 제4기 설계심의 분과위원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를 수행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9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의식 고취 및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2월 21일 개최하였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인 국토교통부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 위원별로 청렴서약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청렴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학계 및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평가하여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임기: 2014년 12월31일까지) 98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은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 구분   | 계      | 공무원     | 공기업     | 교수·연구원  |
|------|--------|---------|---------|---------|
| 인원   | 98     | 32      | 36      | 30      |
| (비율) | (100%) | (32.7%) | (36.7%) | (30.6%) |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턴키 담합 및 비리 방지를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화 하고 있으며 2월에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를 위한 표준입찰안내서\*\* 배포 등 턴키입찰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턴키발주 물량 및 시기조정(업체간 나눠 먹기, 들러리 방지), 가격평가방식 개선(업체간 가격담합 방지), 심의위원별 점수 강제차 등제도 확대(위원들에 대한 로비 방지) 등 ('14.1.22,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 기술제안입찰을 명확한 절차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의 준수사항, 입찰업체 평가방법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는 표준 안내서 마련 ('14.2.11, 전국 발주청에 배포)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 ' 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 단가 적정성 검토 시행...실적공사비 더욱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총 1,961개 항목에 대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금일(2.28)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 단가는 '13년 하반기 대비 1.9%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 공사는 1.7%씩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하락 하였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1.6%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9%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 노임상승(4.4%)과 재료비 하락이 상쇄되어 토목 1.4% 상승, 건축 1.9% 상승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

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45개 항목 외에 토목 공사의 흙관 절단 및 건축 공사의 벽체 띠장설치 등 16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총 1,961개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 '04) 285 → ( '08) 1,392 → ( '10) 1,604 → ( '12) 1,914 → ( '13) 1,945 → ( '14상) 1,961

이번 실적공사비에는 작년 한해 동안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발주청 관계자 등 민·관·연 합동으로 운영한 TF 활동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실적단가가 하도급 단가보다 더 낮은 공종(거푸집, 콘크리트타설 등)에 대하여 계약단가 외에 객관적인 단가자료를 추가로 조사·적용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한층 더 현실화 되었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발주청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실적공사비를 축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 해빙기대비 전국 674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17일부터 3.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연약해지므로 절토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09~'13) 발생한 중대건설사고의 16.3%(8/49건)가 해빙기에 발생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 전문가 126명을 대거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674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흠막이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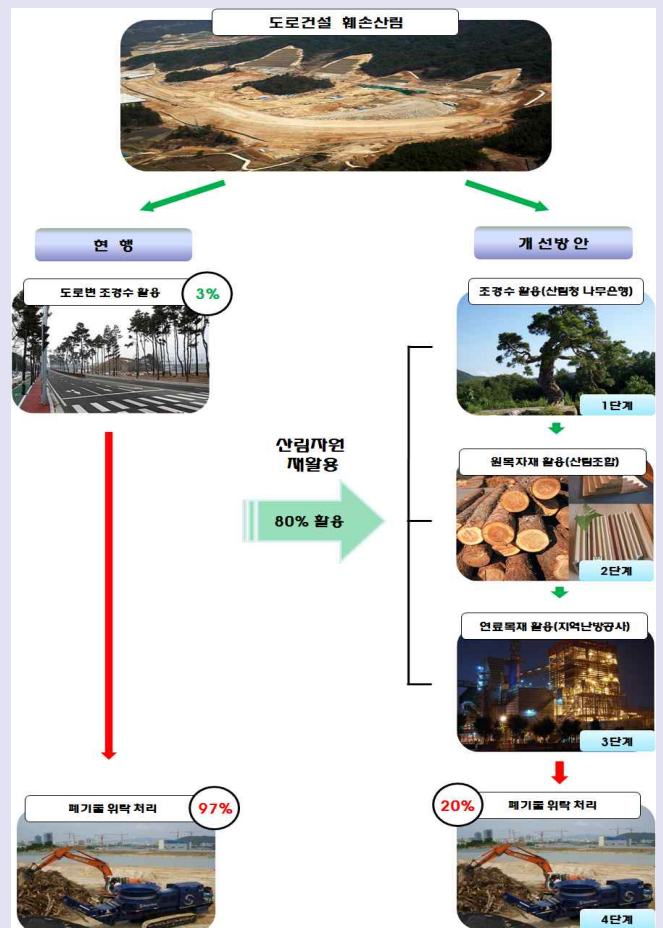
## 도로 등 건설현장 발생 임목 재활용 길 열렸다

▶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공동 추진 합의, 국무회의 보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산림청은 도로,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 국가에 산과 산림자원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2.18) 하였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예산소요와 함께 산림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었으나, 이번 합의로 공사 착수전에 훼손 대상 산림에 대해 ①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수목 1차 선별활용(산림청 나무은행 등) → ② 원목자재로서 가치있는 수목 2차 선별활용(산림조합) → ③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 3차 선별활용(지역난방공사) → ④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 폐기물처리(위탁업체)하는 방식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개념도>

훼손산림 임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전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년평균 114,490천㎡)에서 발생하는 임목(1,438천톤)의 80% 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연간 임목폐기물 처리예산이 690억원 절감과 함께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자재 및 연료목재 등 1,72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CO<sub>2</sub> 등 온실가스 1,055천톤 저감 등의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2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문 열어

▶ 정책개발 지원 및 기업 진출전략 등 제공, ‘해외건설 정책연구 구심점’ 기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에 진출전략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개소식을 2.25일(화) 15시에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원·이노근 의원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최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움직임 속에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정책연구 지원기관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가 출범함으로써 세계경제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상승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방대한 해외건설 정보와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된다.

센터는 해외건설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Think-Tank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성평가, 리스크 관리 컨설팅,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들에 대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조직은 3차 2부로서 해외건설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처,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금융지원처, 사업성평가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리스크관리처로 구성되며, 센터 인력은 총 16명으로서 박사급 등 외부 전문가 3인, 해외건설협회 11인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파견인력(각 1인)으로 구성되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책지원센터가 기업에 제공할 진출 전략 및 사업 리스크 정보가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올해로 해외건설 진출 49년째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 센터가 새로운 반세기의 대도약을 준비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책지원센터 외에도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부대 정부 간 개발협력 강화, 해건협을 통한 우리기업 간 과당경쟁 자율조정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6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3.9.1)대비 0.46%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1.0740%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5% 상승  
-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 재료비: 0.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05% 하락  
- 철근 △ 0.52%, 동관 △ 3.55%, PHC 파일 △ 0.72%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 ~ 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24시간 이내 철거 가능한 파리 세느강의 독일공원

- 파리 세느강변을 붐비게 하는 세느강 독일(Le berges de la Seine)
- 도로 일부 없애고 공원조성, 주말마다 시민 수만명 몰려



파리 세느강변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차도를 봉쇄해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가설교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휴게소 등을 정비했다. 이 시설들은 수위 상승시 모두 24시간 이내에 철거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세느강에 5척의 수상정원을 띄워 수변에 운집하는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파리는 이미 100년 전부터 수해대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계기는 1910년에 제방을 범람한 세느강물이 시내에 밀려들어 일주일이나 배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의 피해를 가져온 일이었다. 이를 교훈삼아 파리는 세느강 상류에 대규모 저수지를 4개 축조함과 동시에 수위를 감시해 위험을 예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최근 2013년 11월 3일에는 4일간에 걸쳐 수위가 3미터를 넘어 파리는 선박의 운행을 금지하고 일부에서는 차도를 봉쇄했다. 그리고 강변 주변의 지하시설 침수피해를 우려한 파리는 주민에게 범람위험지도를 배포하고 귀중품을 지하시설에서 반출하도록 유도했고, 도서관의 지하서고에 비치된 책을 전부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철저함도 보였다.

수해의 발생원인인 세느강은 이전에는, 사람과 화물을 실은 배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주 도로였다. 사람들은 강변을 산책하고 보트타기를 하고 불꽃놀이를 했다. 풀장까지 있었던 시민의 휴식 공간이었던 점은 인상파의 회화에서도 볼 수 있다.



### ◎ 예전의 기능을 회복한 세느강

하지만 1960년대에 독과 강변부지에 차도가 정비되면서 세느강은 준설선의 운항로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그 후 예전의 메인스트리트의 기능을 '에코'라는 시점에서 회복하고자 파리는 선착장을 정비해 바토 버스[(Batbus)-수상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화물을 배로 운송하면 감세해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더욱이 2002년 부터는 매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강가에 인공비치를 만드는 파리 플라쥬[Paris Plage]기간을 기획해 여름 바캉스 장소를 창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느강은 예전의 화려했던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느강 좌안의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 앞의 로얄교[pont Royal]에서 에펠탑 근처의 알마교[pont de l'Alma]까지 약 2.3km 구간의 폭 20m 기존도로는 2012년 여름까지만 해도 편도 2~3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서울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처럼 강을 따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였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을 뜯어내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후 약 10개월의 공사 끝에 2013년 6월 19일 완공되었으며 이 도로의 이름을 세느강 독일 [베르쥬 드 세느-les berges de la seine]이라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산책로, 공원, 놀이기구, 레스토랑, 카페, 스포츠시설, 무대, 전시회장, 대여공간 등은 물론, 바닥은 정장차림으로 도심을 걷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깔았다. 그 위에 페인트로 선을 그려 사람들이 미로찾기, 멀리뛰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통유리를 끼운 컨테이너 박스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강을 보며 책도 읽고 체스같은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또 폭 20m의 대형 칠판에는 아이들이 분필로 마음껏 그림을 그린다. 선착장도 만들어 강을 오가는 유람선을 탈 수도 있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수변 휴게공간이 되었다.

파리시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도심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대기질을 개선하여 오래된 건물을 보호하고 파리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도 있다.



### ◎ 24시간 이내에 해체, 이동

멀리서 볼 때 눈에 띄는 상징물이 생긴 것은 아니다. 깃발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이서 그 시설을 들여다보면 놀랄만한 설계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이 해체되도록 디자인 되어있는 것이다. 즉, 가 시설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단시간에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형구조물은 2개 있다. 하나는 오르세 미술관내의 제방에서 강변까지의 고저차 5m를 완만한 커브를 그리며 건널 수 있는 철제 홍예다리이다. 31단의 계단이 상하에 두 개, 좌우에 8개 합계 16블록으로 나뉘어져 볼트로 조립돼 있다.

설계조건은 본 지역이 199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분류된 레드 존(PPRI, 홍수 위험방지)에 포함되어 있어 세느강 홍수시에는 해체에서 이동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할 것이었으며. 실제로 2013년 11월 수위 상승시 24시간 이내에 철거되었다.

이 다리는 계단임과 동시에 벤치로도 사용된다. 다리 전면에 정박시킨 선상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상의 특등석이 되는 것이다.



### ◎ 8m의 수위상승에 견디는 수상정원

또 하나의 대형구조물이 5개의 수상정원이다. 일반적인 배와 거의 같은 구조의 선저를 가진 작은 배를 정원으로 조성했다. 5척이 연결돼 떠 있는 정원의 총면적은 1,800㎡. 각각의 정원은 테마에 따라 중앙정원, 안개의 정원, 초원정원, 과수원, 조류원으로 명명돼 있다.

초록과 꽃, 산책로, 벤치, 해먹 같은 것으로 구성된 평범한 경관이지만, 사람이 철망으로 된 헛간에 들어가 수변에 운집하는 새들을 관찰하는 정원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정원에는 가능한 한 세느강변에 자생하는 초목을 선택해 조성했다.

수상정원을 계류하는 것은 8개의 강관말뚝에 철강제의 링으로 정원을 연결해 수위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말뚝은 1910년 수해 때와 같은 수위 상승시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높이이다.

수해가 예측되는 곳에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수위상승에 대비한 설계를 하면 된다고 하는 발상인 것이다. 물의 침수를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배와 함께 물에 떠서 수위와 함께 상승, 하강하면서 재해로 인한 손상을 피하는 감재안을 선택했다.



◎ 이동민족의 기술을 수용함

이 디자인을 제안한 크리스토프 코브레(christophe coblet)씨는 여러 이동민족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제시한 파리 플라주의 성과를 보면 가시시설이라는 컨셉트야말로 유원지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상설시설인 것보다 계절이나 기후조건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것이 가설시설인 것이다. 수해로부터 설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설계가 [원래대로 분해 가능할 것]이라는 파리시가 요구한 조건에 코브레씨의 제안이 정확하게 합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2.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5호)
- 예고기간 : 2014. 2. 19. ~ 2014. 3. 3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가 가능한 세대수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시할 사항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사전결정신청서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입법예고일 : 2014. 2. 19.(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56호)

□ 예고기간 : 2014. 2. 19. ~ 2014. 3. 31.

###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규제위주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창조경제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법률 명칭 및 목적 개정 (안 제1조)

- (1) 법률 명칭을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2) 법률의 목적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추가

#### 나. 법률 용어 정비 (안 제2조)

- (1) 법률 용어 변경
  - 간판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업자 → 옥외광고사업자
- (2) 용어 정의 신설 및 구체화
  - 신설 : 생활형 광고물, 사업용 광고물, 광고물 표시계획서 등
  - 구체화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

#### 다. 허가·신고 기준 알기 쉽게 통합 (안 제7조, 8조, 9조, 10조 및 제11조)

- (1) 모든 광고물을 허가·신고 대상으로 하고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법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간소화

#### 라. 온라인 민원처리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7항)

- (1) 시·군 구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함

#### 마.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 (안 제7조 제9항)

-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안 제19조)

- (1) 시·도 및 시·군 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한 용도에 사용토록 함

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0조)

- (1)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함(제1·2항)
-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제2항)
- (3) 해당 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기준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4)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제4항)

아.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1조)

- (1) 연말 연시 또는 주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한 조명 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선정 및 운영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의 규정을 준용함

자. 시 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안 제4조 및 제30조)

- (1) 시 도지사가 시 군 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일정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직접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시 도지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 군 구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차.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2조)

- (1) 시 군 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안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 (1)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 (2)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전화 02-2100-3816, 팩스 02-2100-1749, 이메일: kwonym@korea.kr)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2. 12.(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2호)
- 예고기간 : 2014. 2. 12. ~ 2014. 3. 26.

### □ 개정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2245호, 2014.1.14.]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적용하는 연도별 정기에금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수신 금리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안 제2조제5항)
- 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 인하(25%→20%) 및 한시적 감면대상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다. 연접사업 시행주체인 동일인의 범위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연접사업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일인의 범주에 법인을 포함시킴(안 제4조제1항)
- 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별표 1)이 재정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비부과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정열함(안 제6조제1항)
- 마. 지가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감정평가사도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안 제28조제1항제15호)
- 바. 개발비용 항목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 인정요건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3항제1호)
- 사. 부동산 등을 매각했을때 자연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개발비용 인정대상에 법인세도 포함시킴(안 제13조)
- 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각 공구별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비용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 자. 하나의 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비부과 대상 토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일단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구한 금액에 전체사업 면적중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 차.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 카.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안 제16조제1항)

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을 현행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기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개월로 연장함(안 제17조)

파. 성실납부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은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요율(%) × (조기 납부일수/365일)

하.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제2항)

거.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과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러. 가산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0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골프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므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과제외대상이 아니라 비용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영 <별표1>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5항)

다.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매입가격 인정기관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7조제3항)

라. 지가산정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

마.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은 행정쟁송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훈령에 있는 사항을 법규명령화 함(안 제8조의2)

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을 담은 표준 안내장을 고안하여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별지 18호의 2서식)

#### □ 의견제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참조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 044)201-3403, FAX 044)201-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자료 : 법제처

### 건축 기초공사용 PHC 파일 원커팅 및 육각별 형상의 보강 철근캡을 이용한 파일 두부보강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       |           |
|-------|-----------|
| 법 인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동광이엔티(주)  |
|       | (주)신일기초   |
|       | 쌍용건설(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23호
- 기술분류 : 건축/기초/기초보강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가공 및 조립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원형 지지레일을 따라 회전하고 제어 시스템에 의해 커팅깊이와 간격이 조절되는 파일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PC강선까지 한번에 무충격으로 커팅하고, 보강철근과 상부 지지판 및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두부보강 철근캡을 파일 내경에 삽입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와 기초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두부보강이 가능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커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된 지지레일을 이용한 무충격 원커팅 절단 장치로 파일을 절단하고, 보강철근과 육각별 형상의 상부 지지판 및 철근과 용접된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보강철근캡 조립체를 이용한 건축용 PHC 기초파일 두부보강 공법

### 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석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       |                     |
|-------|---------------------|
| 법 인 명 | 지에스건설(주)            |
|       |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 (주)대작 컨스트럭션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24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 및 기초/흙, 물막이공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거식네일과 제거식강연석을 복합한 본 공법은 흙막이 가시설 벽체 시공시 기존의 쏘일네일링공법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변위 및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품질을 불량을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법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형철근과 고정소켓을 이너스크류로 일체화시킨 제거식네일과 인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제거식강연석을 복합시켜,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쏘일네일링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014년 제2회, 제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1건
- 심의일자 : 2014. 2. 18.(화) / 2014. 2. 19.(수)

| 의안번호       | 안 건 명  | 발주청          | 심의결과   |
|------------|--|--------------|--------|
| 2014-02-01 |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창원시 (치수방재과)  | 조건부 적격 |
| 2014-02-02 | 김해시 블록구축계획 및 우수율 제고사업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김해시 (수도과)    | 조건부 적격 |
| 2014-02-03 | 하동군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하동군 (안전총괄과)  | 조건부 적격 |
| 2014-02-04 |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 조건부 적격 |

| 의안번호       | 안 건 명                                    | 발주청         | 심의결과   |
|------------|--|-------------|--------|
| 2014-03-01 |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창원시 (치수방재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2 | 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함안군 (안전총괄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3 | 김해시 하천분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김해시 (건설방재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4 | 진례 및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김해시 (하수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5 | 김해시 건축분야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김해시 (건축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6 | 거제시 건축조경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거제시 (관광과)   | 조건부 적격 |
| 2014-03-07 | 창원시 건축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창원시 (체육진흥과) | 조건부 적격 |

### 2014년 제4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3건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5건
- 심의일자 : 2014. 3. 19.(화)

| 의안번호       | 요청사항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발주청               |
|------------|------------|----------------|--|-------------------|
| 2014-04-01 | 실시설계 (적정성)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일원<br>· 사업내용 : 택지개발사업 A=248,750㎡<br>· 사 업 비 : 440억원(공사비 253, 부대비등 187)<br>· 사업기간 : 2009 ~ 2015년(5년)          | 의령군 (신시가지 조성 사업단) |
| 2014-04-02 | 실시설계 (적정성) |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일원<br>·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 2.6km<br>· 사 업 비 : 160억원(공사비 160, 보상비등 0)<br>· 사업기간 : 2014 ~ 2017년(3년)                 | 함양군 (안전 관리과)      |
| 2014-04-03 | 실시설계 (적정성)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대평리 일원<br>· 사업내용 : 도로개설 L=4.5km, B=10~20.0m<br>· 사 업 비 : 395억원(공사비 395, 보상비등 0)<br>· 사업기간 : 2014 ~ 2019년(5년) | 거창군 (도시 건축과)      |

| 의안<br>번호   | 안 건 명                                     | 발주청              |
|------------|---|------------------|
| 2014-04-04 | 2020 의령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br>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의령군<br>(건설도시과)   |
| 2014-04-05 | 2030년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br>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통영시<br>(도시과)     |
| 2014-04-06 |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br>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합천군<br>(건설방재과)   |
| 2014-04-07 | 김해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br>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김해시<br>(정수과)     |
| 2014-04-08 |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br>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창원시<br>(정보통신담당관) |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 기 간      | 분 야 |    | 건수 | 심사현황   |        |       | 비고    |
|----------|-----|----|----|--------|--------|-------|-------|
|          |     |    |    | 요청금액   | 심사금액   | 절감액   |       |
| 2014년 2월 | 계   |    | 71 | 85,759 | 81,054 | 4,705 | 5.49% |
|          | 공사  | 토목 | 17 | 47,742 | 45,171 | 2,571 | 5.62% |
|          |     | 건축 | 5  | 16,665 | 15,735 | 930   | 5.58% |
|          |     | 기타 | 13 | 11,311 | 10,554 | 757   | 6.69% |
|          | 용역  |    | 16 | 8,371  | 7,964  | 407   | 4.87% |
|          | 물품  |    | 20 | 1,670  | 1,630  | 40    | 2.41% |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기술인 나눔 정보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개최

- 영남권 교육일시 : 2014. 3. 10.(월) 14:00~
- 장 소 : 부산시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전국발주청 및 용역업체 기술자 등
- 주 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개발 연구진
- 교육내용 : 실적관리시스템 시연·주요기능설명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조기에 업무파악·전파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 회별           | 회별    | 필기시험<br>원서접수 | 필기<br>시험 | 필기시험<br>합격예정자<br>발표 |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br>필기시험 합격자결정<br>(방문제출) | 실기(면접)<br>시험 | 합격자<br>발표 |
|--------------|-------|--------------|----------|---------------------|---------------------------------------|--------------|-----------|
|              |       | 인 터 넷        |          |                     |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br>(인 터 넷)            |              |           |
| 기술사          | 제103회 | 4.4~4.10     | 5.11     | 6.27                | 6.30~7.3                              | 7.26~8.8     | 8.22      |
|              | 제104회 | 6.27~7.3     | 8.3      | 9.19                | 9.22~9.25                             | 10.18~10.30  | 11.14     |
| 기사<br>(산업기사) | 제2회   | 4.18~4.24    | 5.25     | 6.5                 | 6.9~6.12                              | 7.5~7.18     | 8.22      |
|              | 제3회   | 7.25~7.31    | 8.17     | 8.29                | 9.1~9.4                               | 10.4~10.17   | 11.14     |
|              | 제4회   | 8.22~8.28    | 9.20     | 10.2                | 10.6~10.10<br>(10.9 제외)               | 11.1~11.14   | 12.12     |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설계기준 및 예제 기술강좌 개최

- 일 시 : 2014. 3. 19.(수) / 10:00~17:30
- 장 소 :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
- 주 최 : 한국콘크리트학회/한국강구조학회
- 주 관 : 성능기반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설계기준 개발 연구진/합성구조조인트위원회
- 강좌내용 : 국토교통부의 “성능기반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설계기준 개발” 연구의 성과로 한계상태설계 철학에 근거하여 현재 중복 혹은 상충된 기준 항목이 많은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발. 휨부재, 압축부재, 연결부로 구분하여 진행된 설계기준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예제를 건축 분야와 토목분야에 대해서 대상 구조물을 달리하여 설명
- 강좌신청 : 학회 홈페이지(ww.kci.or.kr)

■ 자료 : 한국콘크리트학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l.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mailto: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